

생활주변·다중이용시설·교통수단 180문제 총정리!

유형별 화재안전 OX퀴즈



Global Inspiration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CONTENTS

	생활주변 화재	
01	1. 주택	01
	2. 아파트	02
	3. 학교	03
	4. 병원	04
	5. 공장	05
	6. 공사장	06
	7. 임야	07
	다중이용시설 화재	
02	1. 숙박시설	08
	2. 고시원	09
	3. 영화관	10
	4. PC방	11
	5. 사우나	12
	6. 노래방	13
	교통수단 화재	
03	1. 지하철	14
	2. 버스	15
	3. 항공기	16
	4. 선박	17
	5. 자동차	18
04	정답 및 해설	19~37

1-1 주택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많으면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 ② 주택화재는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낮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③ 온열매트를 보관할 때에는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④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 ⑤ 화재에 대비한 피난로를 2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 ⑥ 식용유로 요리 중에 불이 붙은 경우 재빨리 물을 사용해 불을 끈다.
 - ⑦ 작은 화재의 경우 대피로를 확보한 뒤 소화기를 분사하여 불을 끈다.
 - ⑧ 주택화재경보기는 혼자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 ⑨ 주택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된다.
 - ⑩ 주택화재경보기는 1가구에 1개만 설치하면 된다.

1-2 아파트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아파트 통로나 계단에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놓아도 된다.
- ② 세대 간 경량칸막이(가벽)의 위치를 알고 주변을 잘 정리해야 한다.
- ③ 가정에 일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7년이다.
- ④ 아파트에 있는 옥내소화전은 소방관들만 사용할 수 있다.
- ⑤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수직이동 속도는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빠르다.
- ⑥ 화재 발생 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재빨리 대피한다.
- ⑦ 외출 시에는 가스시설만 잘 점검하면 된다.
- ⑧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바로 물이 나오도록 되어있다.
- ⑨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⑩ 화재 시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옥상층으로 대피해서는 안 된다.

1-3 학교 화재

Right
O

Wrong
X

-
- ①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하려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가야 한다.
- ② 화재 대피 시 열었던 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대피한다.
- ③ 소화기를 사용할 때 바람을 마주보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 ④ 급식실에서 식사하다가 기름에 불이 붙는 것을 보면 빨리 물을 뿌린다.
- ⑤ 화상 위험으로 인해 옷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벗긴다.
- ⑥ 옥내소화전은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방수가 된다.
- ⑦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 ⑧ 학교에 설치된 감지기는 모두 뜨거운 열에만 반응하는 감지기이다.
- ⑨ 피난 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나만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 ⑩ 불이 났을 때는 문의 손잡이를 손등으로 대어보고 뜨거우면 열지 않는다.

1-4 병원 화재

Right
O

Wrong
X

-
- ① 병원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 시 인명 피해도 적다.
- ②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는 별도의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 ③ 병원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발생한다.
- ④ 옥내소화전은 1명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대피 조력자를 위한 손전등, 방연마스크를 미리 준비해둔다.
- ⑥ 일반병원 화재 발생 시 중환자부터 대피시킨다.
- ⑦ 보호자가 있는 환자는 별도로 화재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⑧ 비상 시를 대비하여 월체어, 침상 등 대피 수단을 미리 결정하여 둔다.
- ⑨ 병원은 층별 소방시설 등 위치도 및 대피 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
- ⑩ 병원 건물의 내부마감재는 불연, 준불연재를 사용한다.

1-5 공장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위험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한다.
- ② 공장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므로 대피보다 화재진압을 먼저 해야한다.
- ③ 공장기계나 전기시설에 쌓인 분진도 화재와 관련이 있다.
- ④ 공장에서 보유중인 위험물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 ⑤ 겨울철에는 용접작업 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⑥ 공장화재는 예방보다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⑦ 한 콘센트에 여러 장비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 ⑧ 공장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⑨ 전기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⑩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 해야한다.

1-6 공사장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공사장은 공사 한 후에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 ② 용접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 ③ 용접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적치하면 안된다.
- ④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 전 주변 환경정리는 필수이다.
- ⑤ 화재 발생 시 안전 관리자는 즉시 화재를 진압한다.
- ⑥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는 작업 반경 5m 이내에 설치한다.
- ⑦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다.
- ⑧ 공사장 숙소나 건물 내에는 작업 시 반드시 피난경로를 확보한다.
- ⑨ 간이피난유도선은 야간 작업시에만 점등하면 된다.
- ⑩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은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1-7 임야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등산 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꽂초를 아무 곳이나 버리면 안 된다.
- ② 산불은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 ③ 초기 작은 산불의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진화할 수 있다.
- ④ 불길을 피할 여유가 없으면 낙엽을 치운 다음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다.
- ⑤ 임야화재는 대부분 논밭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 ⑥ 산불 시 계곡에 물이 있다면 계곡 밑으로 대피한다.
- ⑦ 산불 시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뒤 이미 타버린 장소로 선정한다.
- ⑧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⑨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에는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한다.
- ⑩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을 등지고 대피해야 한다.

2-1 숙박시설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숙박시설의 커튼, 벽지 등은 방염처리가 되어있어 불이 붙지 않는다.
- ② 호텔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③ 호텔에 숙박할 경우 피난계단 및 비상구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둔다.
- ④ 객실 내 설치된 간이완강기로 숙박 중인 인원이 모두 대피할 수 있다.
- 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장기간 미사용 시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 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방화문은 개방 후에 고정시켜 사용해도 된다.
- ⑦ 화재가 발생하면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대피를 해야 한다.
- ⑧ 경보음이 울리면 오작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피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다.
- ⑨ 고층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대피한다.
- ⑩ 관계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

2-2 고시원 화재

Right
O

Wrong
X

-
- ① 화재 시 피난방향을 알리는 유도등은 모두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 ② 고시원 각 실 안에는 별도의 소방시설이 없다.
- ③ 고시원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 ④ 완강기를 사용해서 탈출할 때는 만세동작을 하며 내려가야 한다.
- ⑤ 음성통화로 119에 신고하기 힘들 때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⑥ 소규모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⑦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⑧ 고시원 안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 ⑨ 소화기 한 대는 약 3분 정도 분사가 가능하다.
- ⑩ 화재발생 시 대피로에 있는 방화문은 항상 열어둔다.

2-3 영화관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영화 상영 전, 극장 안의 비상구 위치를 미리 정확하게 알아둔다.
- ② 화재대피 시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 ③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불이 난 반대방향 출구로 이동한다.
- ④ 대피 시 다른 사람을 위해 방화문을 활짝 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⑤ 영화관의 피난영상물 상영여부는 의무가 아니다.
- ⑥ 고층에 있는 영화관에서 불이 나면 무조건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다.
- ⑦ 심정지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 ⑧ 매점 내 튀김기에서 불이 나면 즉시 물을 뿌려 불을 끈다.
- ⑨ 화재 시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⑩ 영화관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화재대피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4 PC방 화재

Right
0

Wrong
X

- | | | |
|---|--------------------------|--------------------------|
| ① PC방 이용 전 탈출 가능한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② 다중이용업인 PC방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주만 받으면 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③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찾아 화재 아래층으로 탈출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④ PC방의 비상구는 도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 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⑤ 비상구를 열었는데 경보음이 울리면 추락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⑥ 피난용 완강기는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⑦ 문에 손을 대어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울 때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⑧ PC방은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많아서 분말소화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⑨ 만약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장실로 가서 구조를 기다린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⑩ 겨울철 전기난로 및 온열기구 등은 PC마다 배치하여 사용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2-5 사우나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옥내소화전은 최소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② 전기히터는 안전인증 제품만 확인하면 벽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우나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한다.
- ④ 목욕탕 안에도 화재를 탐지하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⑤ 사우나에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 얼음물로 열을 식혀준다.
- ⑥ 사우나 방문 시에는 항상 주출입구 외에도 별도의 비상구를 확인한다.
- ⑦ 사우나 도중 비상벨소리가 울리다 끊기면 오작동으로 간주해도 된다.
- ⑧ 드라이기나 선풍기는 사용 후 반드시 꺼두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 ⑨ 화재 발생 시 탈의실에 있는 개인소지품을 챙겨 탈출한다.
- ⑩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다.

2-6 노래방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노래방 영업주는 1년에 2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소파, 커튼은 방염성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③ 노래방에서 화재 발생시 화재의 열기로 인한 화상 피해가 가장 크다.
- ④ 소화기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석 등에 보관한다.
- ⑤ 노래방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⑥ 비상구를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 ⑦ 노래방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⑧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화재 발생 시 손님들에게 배부하여 사용한다.
- ⑨ 화재 시 영업주는 가장 먼저 대피하여 119에 신고해야 한다.
- ⑩ 4층 이하의 비상구에는 로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1 지하철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지하철 역사 안의 스크린도어는 비상 시 수동개방이 불가능하다.
- ②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의 양쪽 전부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 ③ 비상시 탑승구에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눌러도 된다.
- ④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창문을 부수고 대피한다.
- ⑤ 지하철 화재 시 정전이 되면 대피유도등을 따라 대피하면 된다.
- ⑥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비상코크는 객차 중앙에 위치한 의자 밑에 있다.
- ⑦ 화재 초기에는 전동차 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가 가능하다.
- ⑧ 통로에 연기가 많아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선로 쪽으로 대피한다.
- ⑨ 화재 시 119에 신고했다면 기관사에게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⑩ 화재 시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대피한다.

3-2 버스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버스의 엔진룸은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다.
- ② 버스 화재는 보닛이나 도어를 개방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 ③ 버스에 있는 비상용망치는 위급상황 시 창문을 깨기 위한 용도이다.
- ④ 모든 버스는 소화기와 비상용 망치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 ⑤ 버스 화재 시 목숨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불에 의한 사망이다.
- ⑥ 비상용망치를 사용할 때 중앙보다 모서리쪽을 공격하면 쉽게 깨진다.
- ⑦ 버스 운행 중 장시간 에어컨 사용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⑧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이다.
- ⑨ 화재 발생 시 버스에서 탈출 후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 ⑩ 2층 대형 승합차의 경우 아래층 승객은 아래층으로만 탈출할 수 있다.

3-3 항공기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항공기가 추락하는 곳과 관계없이 안전벨트는 매는 것이 좋다.
- ② 항공기 구명조끼는 탈출하기 전에 미리 부풀려 놓아야 한다.
- ③ 비상 시 산소마스크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우선 착용시킨다.
- ④ 항공기에서 탈출한 경우에는 구조를 위해 항공기 주변에서 대기한다.
- ⑤ 항공기의 위험한 11분은 '이륙 3분'과 '착륙 8분'을 말한다.
- ⑥ 화재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간단한 소지품을 챙겨서 탈출한다.
- ⑦ 보조 배터리는 기내반입이 금지이며 위탁수화물로 부쳐야 한다.
- ⑧ 비행기의 비상슬라이드가 날카로운 물건에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⑨ 비행기 탑승 시 좌석이 출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 지 확인한다.
- ⑩ 연기가 날 경우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고 기어간다.

3-4 선박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소화기,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는 선실 입구에만 있으면 된다.
- ② 선박을 이용할 때는 구명조끼, 소화기, 비상벨 등의 위치를 확인한다.
- ③ 저체온증은 보통 체온이 35°C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 ④ 바닷물의 온도가 10°C~15°C 일 경우 생존시간은 6시간 이내이다.
- ⑤ 구명조끼 착용 전에는 움직이기 편하도록 옷을 최대한 얇게 입는다.
- ⑥ 배에서 탈출할 때는 신발을 신고 최소한의 거리로 뛰어내린다.
- ⑦ 여객선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 ⑧ 화재 시 실내에 고립이 되었다면 책상이나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긴다.
- ⑨ 선박 탑승 시 승무원 허락 없이 조타실, 기관실 등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⑩ 팽창식 구명뗏목은 바다에 던지기 전에 바람을 넣어야 한다.

3-5 자동차 화재

Right
0

Wrong
X

-
- ① 고속도로에서 화재 발생 시 그 자리에서 즉시 정차해야 한다.
- ②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 ③ 차량용 소화기 중 할로겐소화기는 분사 이후 2차 오염이 없다.
- ④ 자동차 화재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
- ⑤ 주행 중 계기판 온도가 급증하면 즉시 냉각수를 확인해야 한다.
- ⑥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경우 화재발생 전조현상이므로 물을 충분히 뿌린다.
- ⑦ 겨울철에는 여름철과 다르게 공기압을 조금 더 높게 잡아야 한다.
- ⑧ 겨울철에는 자동차의 과도한 히터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⑨ 초기 진화에 실패했을 경우 119에 신고한 후 차량 옆에서 기다린다.
- ⑩ 수소전기차 화재 시 차량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엔진룸이다.

정답 및 해설

1-1 주택 화재

Right
O

Wrong
X

- ①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많으면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 ② 주택화재는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낮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③ 온열매트를 보관할 때에는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④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 ⑤ 화재에 대비한 피난로를 2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 ⑥ 식용유로 요리 중에 불이 붙은 경우 재빨리 물을 사용해 불을 끈다.
- ⑦ 작은 화재의 경우 대피로를 확보한 뒤 소화기를 분사하여 불을 끈다.
- ⑧ 주택화재경보기는 혼자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 ⑨ 주택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된다.
- ⑩ 주택화재경보기는 1가구에 1개만 설치하면 된다.

정답해설

O X O X O / X O X X X

1. 오랫동안 쌓인 먼지는 수분을 머금게 되어 전기가 잘 통하게된다. 전기를 통해 열이 발생되고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2.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침으로 화재를 인지하기 어려워 큰 피해가 일어나기 쉽다. 3. 온열매트를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 내부열선 손상으로 과열이나 합선이 발생하기 쉽다. 4. 옥내소화전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5. 가족 구성원 모두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하며, 피난로는 2개 이상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6. 식용유에 물이 가해지면 불길이 치솟아서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식용유화재를 대비하여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7. 불길이 머리 위로 번지지 않은 초기의 작은 화재는 소화기로 소화하는 것이 좋지만, 항상 대피로를 염두에 두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8. 주택화재경보기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쉽게 천장에 설치 가능하다. 9. 주택화재경보기는 연기를 인식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이다.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경보기가 울리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 10.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

1-2 아파트 화재

Right
O

Wrong
X

- ① 아파트 통로나 계단에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놓아도 된다.
- ② 세대 간 경량칸막이(가벽)의 위치를 알고 주변을 잘 정리해야 한다.
- ③ 가정에 일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7년이다.
- ④ 아파트에 있는 옥내소화전은 소방관들만 사용할 수 있다.
- ⑤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수직이동 속도는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빠르다.
- ⑥ 화재 발생 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재빨리 대피한다.
- ⑦ 외출 시에는 가스시설만 잘 점검하면 된다.
- ⑧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바로 물이 나오도록 되어있다.
- ⑨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⑩ 화재 시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옥상층으로 대피해서는 안 된다.

정답해설

X O X X O / X X X O X

1. 아파트 통로나 계단 등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호) 2. 세대 간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피난통로가 되므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3.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4. 옥내소화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이므로 평소에 사용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5. 건물내부 연기 이동속도는 수평방향은 0.5~1m/s, 수직방향은 2~3m/s, 계단실내의 수직이동속도는 3~5m/s이며 인간 보행속도는 평균 1.3m/s이다. 따라서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집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6.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화재발생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7. 가스레인지 뿐만 아니라 각종 전기시설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8. 스프링클러의 종류는 다양하며 보통 특수용액이 들어간 유리관이 일정온도에 의해 터지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화재와 동시에 물이 쏟아져 침수피해를 줄 우려는 적다. 9. 생략 10.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파악해서 지상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1-3 학교 화재

Right
O

Wrong
X

- ①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하려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가야 한다.
- ② 화재 대피 시 열었던 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대피한다.
- ③ 소화기를 사용할 때 바람을 마주보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 ④ 급식실에서 식사하다가 기름에 불이 붙는 것을 보면 빨리 물을 뿌린다.
- ⑤ 화상 위험으로 인해 옷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벗긴다.
- ⑥ 옥내소화전은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방수가 된다.
- ⑦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 ⑧ 학교에 설치된 감지기는 모두 뜨거운 열에만 반응하는 감지기이다.
- ⑨ 피난 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나만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 ⑩ 불이 났을 때는 문의 손잡이를 손등으로 대어보고 뜨거우면 열지 않는다.

정답해설

O X X X X / X O X X O

1. 연기는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재 시 몸을 낮추고 대피해야 한다. 2. 대피할 때 열었던 문은 반드시 닫는다. 그대로 두면 열과 연기의 이동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화점에 가까이 댄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4. 기름화재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의복은 역지로 벗기게 되면 피부가 뜯기거나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야 한다. 6. 옥내소화전의 경우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야 방수가 가능하다. 7.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화재발생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8. 일부 복도에는 연기에 반응하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9. 혼자 행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도등을 따라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10. 손잡이가 뜨거우면 실내는 이미 연소가 확산된 상태이므로 위험하다.

1-4 병원 화재

Right
O

Wrong
X

- ① 병원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 시 인명 피해도 적다.
- ②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는 별도의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 ③ 병원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발생한다.
- ④ 옥내소화전은 1명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대피 조력자를 위한 손전등, 방연마스크를 미리 준비해둔다.
- ⑥ 일반병원 화재 발생 시 중환자부터 대피시킨다.
- ⑦ 보호자가 있는 환자는 별도로 화재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⑧ 비상 시를 대비하여 휠체어, 침상 등 대피 수단을 미리 결정하여 둔다.
- ⑨ 병원은 각 층별 소방시설 등 위치도 및 대피 안내도를 비치한다.
- ⑩ 병원 건물의 내부마감재는 불연, 준불연재를 사용한다.

정답해설

X X O X O / X X O O O

1.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해줘야 한다. 3. 야간에는 화재를 인지하기 어렵고 병원 근무자들이 주간보다 적기 때문에 큰 피해가 일어나기 쉽다. 4. 옥내소화전은 최소 2명 이상이 사용해야 한다. 한 명은 호스를 잡고 화재 현장으로 끌고 가고, 다른 한명이 남아서 밸브를 열어야 한다. 5. 생략 6. 내원객 및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람부터 자력대피를 시킨 후 부축으로 이동가능한 환자, 중환자 및 독립보행 불가능한 환자 순으로 대피시킨다. (거동불능환자를 대피시키려다 더 많은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 7. 병원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화재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8.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피를 위해 휠체어, 침상 등 대피 수단을 지정하고 평소 대피 훈련을 해야 한다. 9. 생략 10.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 및 준불연재를 사용한다.

1-5 공장 화재

Right
0

Wrong
X

- ① 위험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종류에 상관 없이 옥내소화전으로 불을 끈다.
- ② 공장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므로 대피보다 화재진압을 먼저 해야한다.
- ③ 공장기계나 전기시설에 쌓인 분진도 화재와 관련이 있다.
- ④ 공장에서 보유중인 위험물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 ⑤ 겨울철에는 용접작업 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⑥ 공장화재는 예방보다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⑦ 한 콘센트에 여러 장비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 ⑧ 공장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⑨ 전기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⑩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 해야한다.

정답해설

X X 0 0 X / X 0 0 0 0

1. 위험물 종류에 따라 소화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위험물 종류 및 수량 등 취급 관련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2. 초기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화재 진압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초기 소화 실패 시 즉시 대피를 해야 한다. 3. 합성섬유, 면, 톱밥, 종이류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가연 성분진으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4.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습기가 차지 않는 곳,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진 장소 등에 보관해야 한다. 5. 날씨에 상관없이 용접작업시에는 소화기, 방염시트 등 소화용품을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6. 초기진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화재든 예방이 최선이다. 7. 한 콘센트에 여러 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하게되면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8. 공장화재 주요원인은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합선, 단락, 누전 등)이다. 9. 분말소화기도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10. 생략

1-6 공사장 화재

Right
0

Wrong
X

- ① 공사장은 공사 한 후에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 ② 용접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 ③ 용접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적치하면 안된다.
- ④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 전 주변 환경정리는 필수이다.
- ⑤ 화재 발생 시 안전 관리자는 즉시 화재를 진압한다.
- ⑥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는 작업 반경 5m 이내에 설치한다.
- ⑦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다.
- ⑧ 공사장 숙소나 건물 내에는 작업 시 반드시 피난경로를 확보한다.
- ⑨ 간이피난유도선은 야간 작업시에만 점등하면 된다.
- ⑩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은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정답해설

X X O O X / X O O X O

1.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전에 미리 설치해야 한다.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는 용접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둔다. 3.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1] 4.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화재발생 위험요소 및 기타 안전사고발생요소 등 주변환경을 정리해야 한다. 5. 화재진압보다 인명구조, 대피유도가 우선이다. 6. 간이소화장치는 25m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2] 8. 생략 9. 간이피난유도선은 공사의 작업 중 상시 점등이 되어 있어 화재 시 즉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10.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 안전기준(NFSC606)]

1-7 임야 화재

Right
O

Wrong
X

- ① 등산 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꽂초를 아무 곳이나 버리면 안 된다.
- ② 산불은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 ③ 초기 작은 산불의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진화할 수 있다.
- ④ 불길을 피할 여유가 없으면 낙엽을 치운 다음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다.
- ⑤ 임야화재는 대부분 논밭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 ⑥ 산불 시 계곡에 물이 있다면 계곡 밑으로 대피한다.
- ⑦ 산불 시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뒤 이미 타버린 장소로 선정한다.
- ⑧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⑨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에는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한다.
- ⑩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을 등지고 대피해야 한다.

정답해설

O X O O O / X O O X X

1.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2호. 2. 산불은 비탈을 타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며 경사가 급할수록 아래에서 위로 타오르는 진행속도가 빨라진다. 3. 초기 작은 산불의 경우 외투나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 할 수 있다. 4. 대피할 시간이 없을 경우 불이 붙을 위험이 있는 낙엽 등을 걷어낸 후 얼굴과 몸을 가리고 불길이 지날 때 까지 엎드려 있다. 5. 2019년 임야화재 주요 원인으로 화재 폐기물 소각 중 발생이 1위를 차지함(2020년 산림청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보고 중) 6. 계곡으로 대피할 경우 고립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있어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는다. 7. 산불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등으로 정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8. 산불의 경우 뜨거운 복사열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복사열은 산불지역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9.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산불에 더 강하다. 침엽수는 뾰족한 잎사귀에 송진을 비롯한 기름성분이 많이 있어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다. 10.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을 등지고 대피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연기나 바람의 진로를 보고 바람이 가는 쪽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1 숙박시설 화재

Right
0

Wrong
X

- | | | |
|--|-------------------------------------|-------------------------------------|
| ① 숙박시설의 커튼, 벽지 등은 방염처리가 되어있어 불이 붙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② 호텔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③ 호텔에 숙박할 경우 피난계단 및 비상구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둔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④ 객실 내 설치된 간이완강기로 숙박 중인 인원이 모두 대피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장기간 미사용 시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방화문은 개방 후에 고정시켜 사용해도 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⑦ 화재가 발생하면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대피를 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⑧ 경보음이 울리면 오작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피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⑨ 고층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대피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⑩ 관계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정답해설

X X O X X / X O X X O

1. 방염은 쉽게 불에 타지 않도록 가공하는 것이지 불이 붙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지상 등 피난층으로의 대피가 제일 먼저지만, 지상층 피난이 불가능 하다면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3. 층별 위치도 및 대피안내도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완강기는 1회용으로 여러 명이 이용할 수는 없다. 5.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자체의 방전이 있기 때문에 상시 확인을 해야 한다. 6. 화재 시 연기와 화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7. 화재발생 시 젖은 수건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대피해야 한다. 8. 화재 경보음이 들리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9. 엘리베이터는 굴뚝효과로 인해 위험하다. 고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10. 숙박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대상」에 해당하며 건물의 용도, 구조 등 각 공간이나 기능에 맞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2-2 고시원 화재

Right
0

Wrong
X

- | | | |
|--|-------------------------------------|-------------------------------------|
| ① 화재 시 피난방향을 알리는 유도등은 모두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② 고시원 각 실 안에는 별도의 소방시설이 없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③ 고시원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④ 완강기를 사용해서 탈출할 때는 만세동작을 하며 내려가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음성통화로 119에 신고하기 힘들 때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⑥ 소규모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⑦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⑧ 고시원 안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⑨ 소화기 한 대는 약 3분 정도 분사가 가능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⑩ 화재발생 시 대피로에 있는 방화문은 항상 열어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정답해설

X X O X O / X O O X X

1. 비상구 위치를 알리는 피난구 유도등은 비상구 상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구 방향을 알려주는 복도통로 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피난유도선은 벽면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다. 2.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다.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4. 만세동작을 하면 완강기 벨트에서 몸이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손은 앞으로 뻗어 벽을 짚으면서 내려가야 한다. 5.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음성전화 외에도 문자와 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119에 신고할 수 있다. 6. 고시원은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7. 생략 8. 생략 9. 3.3kg소화기 한 대는 15초 안팎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소화 시 적합하다. 10. 화재 및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2-3 영화관 화재

Right
O

Wrong
X

- | | | |
|--|-------------------------------------|-------------------------------------|
| ① 영화 상영 전, 극장 안의 비상구 위치를 미리 정확하게 알아둔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② 화재대피 시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③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불이 난 반대방향 출구로 이동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④ 대피 시 다른 사람을 위해 방화문을 활짝 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영화관의 피난영상물 상영여부는 의무가 아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⑥ 고층에 있는 영화관에서 불이 나면 무조건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⑦ 심정지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⑧ 매점 내 튀김기에서 불이 나면 즉시 물을 뿌려 불을 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⑨ 화재 시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⑩ 영화관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화재대피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정답해설

O X O X X / X X X X O

1. 상영전 대피로 안내영상 또는 층별안내도를 통해 비상구 위치를 파악해 놓아야 한다. 2. 화재가 발생하면 유도등의 화살표를 따라 대피해야 한다. 3. 생략 4. 연기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화문은 닫고 대피해야 한다. 5. 영화관에는 반드시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하고, 피난영상물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6. 무조건 완강기로 내려 올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7.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8. 식용유에 물이 가해지면 불길이 치솟아서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기름화재에 대비하도록 한다. 9.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굴뚝효과로 인해 위험하다. 고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10.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근무자 이동·변동시마다 안전교육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2-4 PC방 화재

Right
O

Wrong
X

- | | | |
|---|-------------------------------------|-------------------------------------|
| ① PC방 이용 전 탈출 가능한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② 다중이용업인 PC방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주만 받으면 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③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찾아 화재 아래층으로 탈출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④ PC방의 비상구는 도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 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비상구를 열었는데 경보음이 울리면 추락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⑥ 피난용 완강기는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⑦ 문에 손을 대어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울 때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⑧ PC방은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많아서 분말소화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⑨ 만약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장실로 가서 구조를 기다린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⑩ 겨울철 전기난로 및 온열기구 등은 PC마다 배치하여 사용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정답해설

O X O X O / X O X X X

1. 생략 2.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를 포함한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 아래층으로 탈출해야 한다. 4. 비상구는 폐쇄할 수 없고,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5.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발코니 및 부속실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도어경보기, 안전로프 등이 설치되어 있다. 도어벨은 문을 열면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을 낸다. 6. 숙박업소에 비치되는 간이 완강기는 일회성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완강기의 경우 양 쪽 안전벨트를 활용해 반복적 대피가 가능하다. 7. 문이 뜨겁다는 것은 이미 내부에 연소확대가 진행되어 열기와 화염이 가득한 상태이므로 문을 열면 위험하다. 8. 분말소화기는 분말 때문에 청소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사용 가능하다. 9. 밀폐된 공간보다는 창문이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유독가스가 새어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 그리고 외부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10. 전기난로, 온열기구 등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2-5 사우나 화재

Right
O

Wrong
X

- | | | |
|---|-------------------------------------|-------------------------------------|
| ① 옥내소화전은 최소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② 전기히터는 안전인증 제품만 확인하면 벽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③ 사우나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④ 목욕탕 안에도 화재를 탐지하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사우나에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 얼음물로 열을 식혀준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⑥ 사우나 방문 시에는 항상 주출입구 외에도 별도의 비상구를 확인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⑦ 사우나 도중 비상벨소리가 울리다 끊기면 오작동으로 간주해도 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⑧ 드라이기나 선풍기는 사용 후 반드시 꺼두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⑨ 화재 발생 시 탈의실에 있는 개인소지품을 챙겨 탈출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⑩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정답해설

O X X X X / O X O X O

1. 옥내소화전은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 한 명이 호스를 들고 화재가 난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한 명은 밸브를 열어줘야 한다. 2. 전기히터는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지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4. 목욕탕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감지기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5. 화상을 입은 부위는 흐르는 수돗물로 15분 정도 열을 충분히 식혀준다. 6. 생략 7. 비상벨소리가 울리면 반드시 화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 장시간 사용할 경우 모터과열 등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 9. 화재 시 대피가 우선이다. 10. 방화문은 열과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닫힌 상태여야 하며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2-6 노래방 화재

Right
O

Wrong
X

- | | | |
|---|-------------------------------------|-------------------------------------|
| ① 노래방 영업주는 1년에 2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②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소파, 커튼은 방염성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③ 노래방에서 화재 발생시 화재의 열기로 인한 화상 피해가 가장 크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④ 소화기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석 등에 보관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노래방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⑥ 비상구를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⑦ 노래방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⑧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화재 발생 시 손님들에게 배부하여 사용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⑨ 화재 시 영업주는 가장 먼저 대피하여 119에 신고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⑩ 4층 이하의 비상구에는 로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정답해설

X O X X X / X O X X O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총 4회의 세부점검표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2. 노래방은 소방법에 따른 방염 적용대상이다.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3. 밀폐되어있는 노래방 특성 상 연기에 의한 질식 등의 피해가 가장 크다. 4. 소화기는 출입문 근처, 습기가 적고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5. 간이 스프링클러는 지하층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과 대규모 건물에만 설치한다. 6.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한 배상에 한정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8.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노래방 각 실에 항상 비치해둬야 한다. 9. 화재 시 이용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0. 4층 이하로서 발코니, 부속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도어경보기, 추락위험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2)

3-1 지하철 화재

Right
0

Wrong
X

- ① 지하철 역사 안의 스크린도어는 비상 시 수동개방이 불가능하다.
- ②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의 양쪽 전부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 ③ 비상시 탑승구에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눌러도 된다.
- ④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창문을 부수고 대피한다.
- ⑤ 지하철 화재 시 정전이 되면 대피유도등을 따라 대피하면 된다.
- ⑥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비상코크는 객차 중앙에 위치한 의자 밑에 있다.
- ⑦ 화재 초기에는 전동차 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가 가능하다.
- ⑧ 통로에 연기가 많아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선로 쪽으로 대피한다.
- ⑨ 화재 시 119에 신고했다면 기관사에게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⑩ 화재 시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대피한다.

정답해설

X X 0 0 0 / 0 0 0 X 0

1. 스크린도어의 빨간색 바를 밀면 비상문을 열 수 있다. 2. 피난통로의 한 쪽을 이용하고 다른 쪽은 소방대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비상정지버튼은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철도안전법 제47조 2항) 4. 대피시 출입문이 고장났다면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창문을 부수고 대피해야 한다. 5. 유도등을 따라가면 지상 등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으며,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유도등을 따라 대피가 가능하다. 6. 비상시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비상코크는 좌석 밑에 있으며 빨간 커버를 열어 몸 쪽으로 당겨 열 수 있다. 7. 지하철 내 초기화재는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하다. 8. 지하역사의 경우 가장 바닥층인 승강장층이나 내가 있는 위치보다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비상계단 자체가 스모크타워를 형성해 더 위험할 수 있어 선로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9. 화재가 발생했다면 객실 끝에 위치한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차량번호 및 불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10. 생략

3-2 버스 화재

Right
0

Wrong
X

- | | | |
|--|-------------------------------------|-------------------------------------|
| ① 버스의 엔진룸은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② 버스 화재는 보닛이나 도어를 개방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③ 버스에 있는 비상용망치는 위급상황 시 창문을 깨기 위한 용도이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④ 모든 버스는 소화기와 비상용 망치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버스 화재 시 목숨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불에 의한 사망이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⑥ 비상용망치를 사용할 때 중앙보다 모서리쪽을 공격하면 쉽게 깨진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⑦ 버스 운행 중 장시간 에어컨 사용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⑧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이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⑨ 화재 발생 시 버스에서 탈출 후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⑩ 2층 대형 승합차의 경우 아래층 승객은 아래층으로만 탈출할 수 있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정답해설

X X O X X / O O O O O

1. 버스의 엔진룸은 뒤쪽에 있다. 2. 보닛이나 도어를 개방하지 않으면 연소실체에 대한 소화효과는 없으므로 주의한다. 3. 생략 4. 모든 버스는 아니다. 36인승 대형버스의 경우 소화기는 3단위(3.3kg) 1개 이상 또는 2단위(1.5kg)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비상용 망치는 4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5. 불에 의한 직접적 사망 보다는 연기흡입에 의한 질식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6. 망치로 유리창을 깨 때는 가운데 부분보다 모서리 부분이 더 수월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도 막을 수 있다. 7. 장시간 에어컨 및 히터 사용은 엔진의 과열을 일으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8.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는 비상탈출장치(승강구, 비상문,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9. 폭발위험 및 뜨거운 열기와 연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의31] 참고

3-3 항공기 화재

Right
0

Wrong
X

- | | | |
|--|-------------------------------------|-------------------------------------|
| ① 항공기가 추락하는 곳과 관계없이 안전벨트는 매는 것이 좋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② 항공기 구명조끼는 탈출하기 전에 미리 부풀려 놓아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③ 비상 시 산소마스크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우선 착용시킨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④ 항공기에서 탈출한 경우에는 구조를 위해 항공기 주변에서 대기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항공기의 위험한 11분은 '이륙 3분'과 '착륙 8분'을 말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⑥ 화재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간단한 소지품을 챙겨서 탈출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⑦ 보조 배터리는 기내반입이 금지이며 위탁수화물로 부쳐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⑧ 비행기의 비상슬라이드가 날카로운 물건에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⑨ 비행기 탑승 시 좌석이 출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⑩ 연기가 날 경우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고 기어간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정답해설

X X X X O / X X O O O

1. 지상에 추락할 경우 안전벨트는 매고 있어야 안전하지만 수중에 추락할 때에는 안전벨트가 탈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2. 항공기용 구명조끼는 절대로 탈출 전에 부풀려서는 안 된다. 물에 추락할 경우 비행기에 물이 차오를 때 몸이 떠올라서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3. 산소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줘야 한다. 4. 탈출 후 비행기에서 멀리 떨어져야 안전하다. 5. 비행기 착륙 8분 전에는 출력을 비행능력 이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기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고 이륙 후에도 기체 결함이나 위험상황을 발견하더라도 운항을 중단하기 어렵다. (역대 항공 사고 중 70~80%가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 내에 발생함) 6. 비상시에는 여권을 포함한 모든 짐을 버리고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 7. 보조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 위탁수화물로는 금지되며 기내용 가방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다. 8. 비상슬라이드는 고무재질이라 날카로운 물건에 찢어질 수 있어 탈출 시 날카로운 물건에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9.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가장 가까운 출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봄으로써 가장 먼저 탈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10. 생략

3-4 선박 화재

Right
O

Wrong
X

- | | | |
|---|-------------------------------------|-------------------------------------|
| ① 소화기,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는 선실 입구에만 있으면 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② 선박을 이용할 때는 구명조끼, 소화기, 비상벨 등의 위치를 확인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③ 저체온증은 보통 체온이 35°C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④ 바닷물의 온도가 10°C~15°C 일 경우 생존시간은 6시간 이내이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⑤ 구명조끼 착용 전에는 움직이기 편하도록 옷을 최대한 얇게 입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⑥ 배에서 탈출할 때는 신발을 신고 최소한의 거리로 뛰어내린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⑦ 여객선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⑧ 화재 시 실내에 고립이 되었다면 책상이나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긴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⑨ 선박 탑승 시 승무원 허락 없이 조타실, 기관실 등을 출입하지 않는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⑩ 팽창식 구명뗏목을 바다에 던지기 전에 바람을 넣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정답해설

X O O O X / X X X O X

1. 안전장비는 선실 입구 뿐 아니라 선실 전체에 고르게 비치해야 한다. 2. 선박 내의 구명조끼, 소화기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비상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찬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 저체온증은 인체의 중심체온이 35°C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며, 체온이 28°C 이하로 떨어지면 혈압이 낮아지고 의식을 잃게되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4. 바닷물의 온도가 10~15°C일 경우 생존시간은 6시간 이내이며 10°C이하인 곳의 생존 예상시간은 3시간 정도이다. 5.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옷을 두껍게 입는다. 6. 비상상황에서 배에서 탈출할 때는 물 속에서 움직이기 좋게 신발을 벗고, 최대한 멀리 뛰어내려야 한다. 7. 화재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에 갇힐 위험이 있으므로 도보로 이동한다. 8.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외부에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9.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승무원 허락없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10. 비상탈출시 구명뗏목을 던지면 일정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팽창한다.

3-5 자동차 화재

Right
O

Wrong
X

- | | | |
|---|-------------------------------------|-------------------------------------|
| ① 고속도로에서 화재 발생 시 그 자리에서 즉시 정차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②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③ 차량용 소화기 중 할로겐소화기는 분사 이후 2차 오염이 없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④ 자동차 화재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⑤ 주행 중 계기판 온도가 급증하면 즉시 냉각수를 확인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⑥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경우 화재발생 전조현상이므로 물을 충분히 뿌린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⑦ 겨울철에는 여름철과 다르게 공기압을 조금 더 높게 잡아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⑧ 겨울철에는 자동차의 과도한 히터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⑨ 초기 진화에 실패했을 경우 119에 신고한 후 차량 옆에서 기다린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⑩ 수소전기차 화재 시 차량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엔진룸이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정답해설

X X O X X / X O O X X

1. 고속도로에서는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갓길에 차량을 옮기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2. 자동차에는 일반 분말소화기가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3. 차량용 소화기에는 분말소화기, 할로겐 소화기, 폼 소화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 할로겐소화기는 기체형으로 분사 이후 2차 오염이 없으나 분말소화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4. 겨울에는 장기간 히터사용으로 인한 엔진과열 및 정전기에 의한 화재가 잦아 자동차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5. 뜨거워진 냉각수가 압력에 의해 튀면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원인은 냉각수 계통 파손 및 누설된 유류 증발 등이고, 유류 누출 시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연소가 확대 될 우려가 있다. 7. 공기압이 낮으면 열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스탠딩웨이브현상(고속 주행 시 타이어 접지부에 열이 축적되어 변형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8. 생략 9. 차량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과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10. 수소연료 탱크가 차량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후면부가 가장 위험하므로 접근을 피해야 한다.



Global Inspiration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4 별관 5층 예방과

전화 031-849-4022 / 팩스 031-280-8509